

## - 유교문화 및 한·중 효문화 교류를 위한 - 중국 산둥성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

### 순서

1. 개요
2. 일정
3. 내용
  - ① 국가(성)개요: 중국, 산둥성
  - ② 도시 개요
  - ③ 주요내용
    1. 한중 유가문화 및 효사상 간담회
    2. 현대적 효문화의 방향과 한중 유교문화 교류
    3. 한국의 효문화 특강(산동사범대학)
    4. 중국산둥성 유교문화 답사
      - 태안, 곡부, 니산서원, 공자박물관 등
4. 주요성과  
붙임 간담회 자료



# - 유교문화 및 한·중 효문화 교류를 위한 - 중국 산둥성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

## 1 출장개요

### ○ (출장목적)

- 공자·맹자 고향 중국산둥성 유교문화 및 한중 효문화 교류를 통한 대전유교문화 및 효문화 활성화 방안 모색
- 한·중 효문화교류 및 활성화를 위해 산둥사회과학원, 산둥대학, 산둥사범대학 등을 방문하여 학술교류 및 협력관계 구축

### ○ (출장기간) 2023. 6. 26.(월) ~ 6. 30.(금) / 4박 5일

### ○ (출장국가) 중국 산둥성

### ○ (출 장 자) 총 6명 [대전시의회 의원 2명, 한국효문화진흥원 3명, 대전시청 1명]

연 번	소 속 및 직 급	성 명	주 요 역 할
1	대전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	송인석	· (산둥대학) 세미나 주제발표 · (산둥사회과학원) 간담회 발표 및 주요 인사 면담
2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박종선	· (산둥대학) 세미나 주제발표 · (산둥사회과학원) 간담회 발표 및 주요 인사 면담
3	한국효문화진흥원장	김기황	· (산둥대학) 세미나 축사 및 현장 기념취회 · (산둥사회과학원) 간담회 발표 및 주요 인사 면담 · (산둥사범대학교) 한국의 효문화 특강
4	한효진 효문화연구단장	김덕균	· 공무 국외출장 섭외 및 총괄 · 중국어 통역 및 일정 조율 등
5	한효진 효문화연구단 차장	김부야	· 출장계획 수립 및 사전 준비 · 행사사진촬영 및 출장기록 · 회계담당 및 보고서 작성 등
6	대전광역시 노인정책팀장	김기필	· 의원과의 소통지원 · (산둥사회과학원) 주요 인사 면담, 시정 소개

## 2 출장일정

- 기간: 2023년 6월 26일(월) ~ 30일(금)
- 장소: 중국 산동사회과학원, 산동대학, 산동사범대학, 제남, 태안, 곡부
- 일정표

구분	내용	비고
1일차 (6/26,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00 대전시청 출발</li> <li>* 09:00 인천공항</li> <li>* 09:30 탑승수속</li> <li>* SC4096 인천 11:45 ~ 제남 12:30</li> <li>* 15:00 산동대학 유학고등연구원, 한중 유교문화 및 효사상 간담회 “유교문화의 어제와 오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김덕균 단장(한효진)</li> <li>- 축사: 김기황 원장(한효진), 증진우 교수(중국 산동대)</li> <li>- 발표자(한국): 송인석 의원(“대전 이시동 유교문화의 가치”) 박종선 의원(“효와 복지, 그리고 환경”)</li> <li>- 발표자(중국): 산동대 교수 4명</li> </ul> </li> <li>* 18:00 산동대학 증자연구원장 초청 만찬</li> </ul>	제남시 (산동성 수도)
2일차 (6/27,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0 산동사회과학원, 유교문화 교류 간담회 “현대적 효문화의 방향과 한·중 유교문화 교류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동사회과학원(당서기, 원장, 부원장 외)</li> <li>- 한효진(김기황 원장, 김덕균 단장, 김부야 차장)</li> <li>- 대전시의회(송인석 의원, 박종선 의원)</li> <li>- 대전시(김기필 팀장)</li> </ul> </li> <li>* 14:00 산동사범대학 한국효문화특강(김기황 원장)</li> <li>* 오후 태안 이동</li> </ul>	
3일차 (6/28,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전 태산 등정(유교·도교·문화 성지 답사)</li> <li>* 오후 곡부 (공묘: 공자사당, 공부: 관청, 공림: 곡부공씨 가족묘원)</li> </ul>	태안시 곡부시
4일차 (6/29,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전 니산서원(공자탄생지), 공자박물관, 공자대학당</li> <li>* 오후 산동성박물관</li> </ul>	제남시
5일차 (6/30,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00 호텔출발</li> <li>* 07:00 제남공항(08:10) - 인천(10:45) - 대전(14:00)</li> </ul>	

### 3 출장내용

#### 1 출장국가 개요

##### ○ 중국 산둥성

- 성 도 : 제남
- 위 치 : 북위 34° ~38° 사이 (한국 중부 이남 지방과 동일 위도), 황하 하류
- 면 적 : 15.78만km<sup>2</sup> (중국 전체면적의 1.6%), 한국(북한제외)의 1.5배
- 인 구 : 1억 152만명(중국 내 2위), 중국 총인구의 7.2%
- 지 형: 평원 55%, 산지 및 구릉지 28.7%, 하천 및 호수 8.5%, 기타 7.8%
- 일반현황
  - \* 1인당 GDP: 12,000불, 중국 내 3위, 광둥성(1)-강소성(2)
  - \* 한국 자매 지자체: 경상남도(산둥성, 1993), 경기도(산둥성, 2009), 수원시(제남), 대구시(청도) 외 23개 시도
- 역사와 문화: 유교문화의 발원지
  - \* 서주(西周)시대(기원전 11세기~기원전 771년) 약 40여개 제후국이 있었으며, 그 중 제나라와 노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중국 고대 역사에 큰 영향
  - \* 노나라는 주공에게 봉한 제후국으로 曲阜에 도읍
  - \* 제나라는 강태공에게 봉한 제후국으로 臨淄에 도읍
  - \* 춘추전국시대(기원전 770년~기원전 221년)
  - \* 제나라와 노나라를 중심으로 여러 제후국이 공존하여 오다가 전국시대 말기 노나라가 초나라에 의해 멸망되고 제나라의 세력이 강화
  - \* 제자백가 중 공자, 맹자, 손자, 묵자, 관자 및 제갈량, 왕희지 등이 산둥성 출신



## 2 출장도시 개요

### ○ 제남시

- 인구: 약 700만 명(도시지역 470만)
- 기후특징: 소문난 여름 더위.  
중국의 4대 화로도시 중 하나로 연평균 기온 14℃, 평균 강우량 614mm.
- 도시명 어원: 濟水의 남쪽에 위치하였다고 하여 제남이라 붙여진 이름
- 한국 자매도시: 경기도 수원시



### ○ 태안시(태산)

- 인구: 564만명
- 특징: 5岳중 첫 번째로 꼽히는 동악(東岳) 태산 소재
- 도시명 어원:  
“태산이 안녕하면 천하가 안녕하다.”  
(泰山安則四海皆安)  
“나라가 번영하고 국민이 안녕하다.”  
(國泰民安)
- 한국 자매도시: 충청남도 태안군



### ○ 제녕시(곡부, 추성)

- 인구: 840만명
- 역사인물: 유교 문화의 발원지. 춘추시대 5대 성인 孔子, 孟子, 顔子, 曾子, 子思子の 고향.
- 한국 자매도시: 경북 안동시



### 3 주요내용

#### 1. 한중 유가문화 및 효사상 간담회(제1차)

- 방문일자 : 2023. 6. 26.(월) 15:00 ~ 18:00
- 장 소 : 산동대학 유학고등연구원 中国山東大學儒學高等研究院
- 주관·주최 : 한국효문화진흥원·韩国孝文化振兴院  
중국증자연구원·中国曾子研究院  
중국증지명 “증자학술기금”·中国曾智明 “曾子学术基金”
- 주 제: “유가적 효문화의 어제와 오늘” “儒家孝文化的昨天与今天”
  - 사회: 김덕균 단장(한효진)
  - 축사: 김기황 원장(한효진), 증진우 교수(산동대학)
  - 발표자(한국): 송인석 의원(“대전 이사동 유교문화의 가치”)  
박종선 의원(“효와 복지, 그리고 환경”)
  - 발표자(중국): 산동대학교 유학고등연구원 교수 증진우(“효개념의 다양성”)  
산동대학교 유학고등연구원 부교수 증미주(“논어의 효사상”)  
산동대학교 부교수 천진첩(“효와 유가적 仁의 다중진로에 대하여”)  
산동대학교 부교수 이부강(“효도의 합리성 검토”)
- 주요내용(요약) ※ 간담회 자료 붙임 1 참조

#### ■ 산동대학 증진우 교수

- 대전시, 대전시의회, 한효진 내빈의 산동대학 방문 환영
- 이번 방문을 계기로 산동대학과 많은 학술교류 희망
- 향후 한중 양국이 중심이 되어 세계효문화논단 구상 희망

#### ■ 한효진 김기황 원장 (축사 요약)

- 환대에 대한 감사, 한중 효문화의 유구한 역사성을 존중하기 위한 귀한 자리
- 이번 유교효문화세미나를 통해 양국이 서로 소통하고 발전적인 미래를 지향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

#### ■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주제발표 요약)

- 한국유학의 대학자이자 기호예학의 대가 송시열이 대전 출신임을 소개
- 앞으로 공자의 대표제자였던 증자의 후예인 중국의 증씨가문과 한국 유학을 대표하는 송시열의 후손인 송씨가문이 교류하며 유학에서의 예와 효를 함께 논의하는 기회가 있길 희망
- 대전의 이사동은 유교문화가 오래전부터 뿌리내린 곳. 중국 곡부의 공씨

집안 가족묘원이 있듯 대전 이사동에는 송씨가문의 가족묘원이 대규모로 있음  
 - 이에 중앙정부와 대전시가 지원하는 유교문화진흥사업이 대전 이사동에 구체화되고 있음

■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 이 시대 효인성교육이 매우 절실함을 강조하고, 직접 학교 현장에서 효인성교육에 참여했음을 설명함
- 특히 효와 복지는 각각의 둘이 아닌 하나임을 역설하며 구체적인 정책 제안
-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효의 정신이 복지제도와 현장에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역설함

■ 중국교수 4명(별지)

○ 관련 사진



환영인사



환영인사



기념촬영



기념촬영



김기황원장 축사



발표 (박종선의원, 송인석의원)



티타임



토론



김기황 원장 친필서예



김기황 원장 친필서예 전달



공자상 기념촬영



만찬

## 2. 유교문화 교류 간담회(제2차)

- 방문일자 : 2023. 6. 27.(화) 10:00 ~ 12:00
- 장 소 : 산동사회과학원 멀티미디어 회의실
- 주 제 : “현대적 효문화의 방향과 한·중 유교문화 교류 협력”  
“中韩现代孝文化走向及儒家文化交流合作之道”
- 주관·주최 : 한국효문화진흥원·韩国孝文化振兴院  
중국산동사회과학원·山东社会科学院
- 참석자: 총 14명
  - 한효진(김기황 원장, 김덕균 단장, 김부야 차장)
  - 대전시의회(송인석 의원, 박종선 의원)
  - 대전시(김기필 팀장)
  - 산동사회과학원·山东社会科学院: 유안홍잉袁紅英 당서기党书记, 쟡펑롄张凤莲 副院长, 리우원차오劉云超 儒学研究院院长, 저우떠루周德祿 部長, 판디앤안管典安 主任, 리원주앤李文娟, 쟡썩張興, 친수징秦樹景, 쟡형張恒, 양촨샤오楊傳召 研究員 외
- 주요내용

### ■ 산동사회과학원장 유안홍잉 당서기

- 산동사회과학원을 방문해 주신 귀한 손님을 진심으로 환영
- 한효진-산동사과원은 업무협약 기관으로서, 이번 간담회로 양기관의 협력과 교류가 더욱 강화됨과 동시에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길 희망

### ■ 한효진 김기황 원장

- 한효진은 중앙정부와 대전시가 공동출연하여 2017년 설립된 효문화 전문 교육연구 기관임
- 과거 헌신과 희생적 효문화에서 벗어나 현대적 효실천방법으로 ‘칭찬’ 과 ‘감사’ 운동을 펼치고 있음
- 앞으로 함께 효문화를 알리고 실천하는데 한중이 함께 노력하여 성과 이루길 기대
- 방문기념 휘호 제작 기증 (“德不孤 必有隣”)

### ■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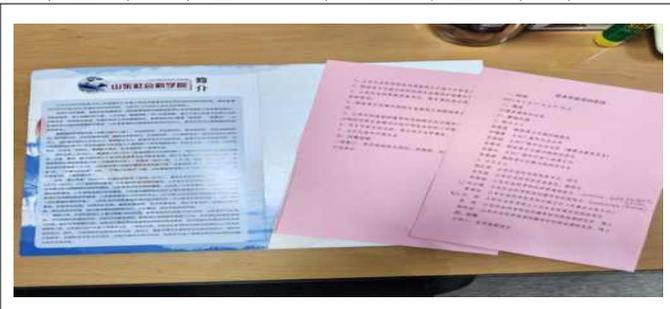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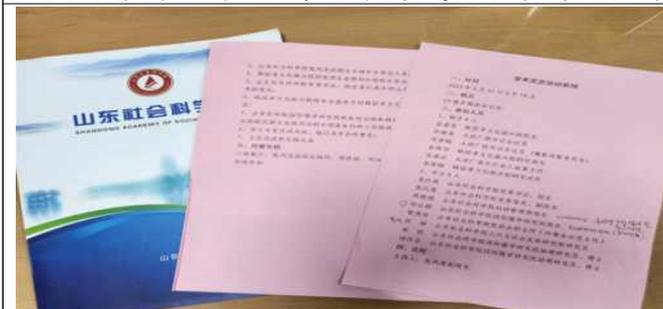
- 산동사회과학원의 초청과 환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깊은 교류를 이어가며 상호 발전이 있기를, 그리고 대전에 꼭 답방해 주시길 바람
- 대전은 과학도시로서 국가 및 기업 연구소가 밀집되어 있고, 동시에 효문화중심도시로서 ‘효’를 정신가치로 매우 중요히 여기고 있음
- 산동성은 공자 맹자가 태어난 유교문화의 본산으로 효문화중심도시 대전과 상호 교류의 필요성이 있음. 향후 많은 교류와 협력이 필요함 강조

### ■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 기호학파의 중심에 대전이 있고, 그 중심에 예학의 대가인 우암 송시열이 있음. 특히 송시열은 조선을 대표하는 사상가, 교육자, 정치인이고, 대전 이사동은 은진송씨 재실 16곳, 가족묘 1천기 이상이 있음
- 은진송씨 가족묘원은 세계유산으로 등재 할 가치가 있다고 봄
- 산동성 유가문화 유적은 이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 이번 기회에 많은 것을 보고 배운다면 향후 이사동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지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함

### ○ 산동사회과학원 소개

- 산동사회과학원은 산동성위원회, 산동성정부 직속의 종합사회과학 연구기관
- 1978년 3월 설립된 산동성 사회과학연구소가 모태
- 1980년 12월 산동사회과학원으로 명칭을 변경
- 중앙과 성위원회, 성정부의 배치요구에 따라 철학사회과학혁신공정의 전면추진과 일류신형싱크탱크건설, 산동성 성정종합데이터베이스와 연구평가센터, 서비스경제문화강화 등 혁신적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
- 그 간 총 1,900개 이상의 핵심 과제를 수행하고 24,583개 이상의 다양한 연구 성과를 달성했으며 12,903개의 저서를 출판, 125개 국가급 과제수행
- 매년 30회 이상의 국제 및 전국 학술회의를 개최
- 10개국 이상의 대학 및 과학 연구 기관과 학술 교류 관계를 구축



○ 관련 사진



기념촬영



간담회



김기황 원장 축사



송인석 의원 발표



박종선 의원 발표



김기필 팀장 발표



간담회 토론



간담회 토론



김기황 원장 친필서예



김기황 원장 친필서예 전달



기념패 전달



오찬

### 3. 산동사범대학교 특강

- 방문일자 : 2023. 6. 27.(화) 14:00 ~ 15:00
- 장 소 : 산동사범대학
- 주 제 : “한국 효문화의 어제와 오늘·韩国孝文化的昨天与今天”
- 강 연 자 : 한국효문화진흥원장 김기황
- 사 회 : 쫑지에鐘結 주임교수
- 참 석 자 : 산동사범대학교 한국어과 교수 및 학생 100명
- 주요내용

#### ■ 효의 역사관

- 세계사(보편적 가치, 3通) : 종교적, 사상적, 시대적
- 동양사상: 중국 / 유교사상(공자, 맹자, 증자)에서 출발
- 한국 효: 전통민간의 효(고조선) + 중국 유교의 영향(삼국시대 『논어』 『효경』 전래)  
→ 효정서와 문화 정착, 각종 문화재와 전설로 남아 있음

#### ■ 한국의 효 역사

- 전통개념: 유교사상 영향, 청동기 고인돌, 가부장, 주자사상 전래 확산
- 현대개념
  - 사고, 가치관의 변화로 ‘전통’ 배제 → 수평적, 양방향적
  - HYO 이룬 등장 / 고 최성규 총장 → Harmony of Young & Old
  - 칭찬운동 / 고 오원균 회장 → 양과실험

#### ■ 대전의 효정책

- (성씨)뿌리공원, 족보박물관 등 효시설 집적화, 과거 인물 中 효관련 유명 인사 등장
- 시민정서: 선비정신

#### ■ 韓孝振 출범

- 설립: 2007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법에 근거 2017년 ‘한국효문화진흥원’ 설립
- 기능과 역할: 효관련 연구, 교육, 전시체험
- 운영실태: 효문화 뿌리축제, 국제효문화학술대회, 국내외 관광명소화

#### ■ 발전과제

- 법령강화: 효 국가정책화
- 효 모범도시 성역화 (관리통합, 시설보강)
- 효 실천 시민 확대 (대전 → 전국)
- 효 문화 일류도시 선포식 (6/9)
- K-HYO의 세계화 중심(국제사회 교류 확대, 현 산동사회과학원과 MOU)

○ 관련 사진



한국의 효문화 특강(김기황원장)



한국의 효문화 특강(김기황원장)



한국의 효문화 특강(김기황원장)



한국의 효문화 특강(김기황원장)



기념패 전달



특강 이후 중국학생의 개별질의응답



기념촬영



기념촬영

## 4. 중국산동성 유교문화 답사

### ○ 영암사

- \* 영암사는 산동성 지난(濟南)시에 있었던 불교 사찰이다. 1600년전인 동진 때 창건된 사찰로 중국에서도 가장 먼저 세워진 주요 사찰
- \* 수.당 때 크게 번창하였다.
- \* 불교는 동한말 산동지방에 전래된 이래 위.진.남북조시대를 거치면서 크게 융성 산동지방에서는 당시 조성된 불상을 비롯한 다양한 불교유물들이 출토



## ○ 태산(泰山)

\* 해발 1,545m,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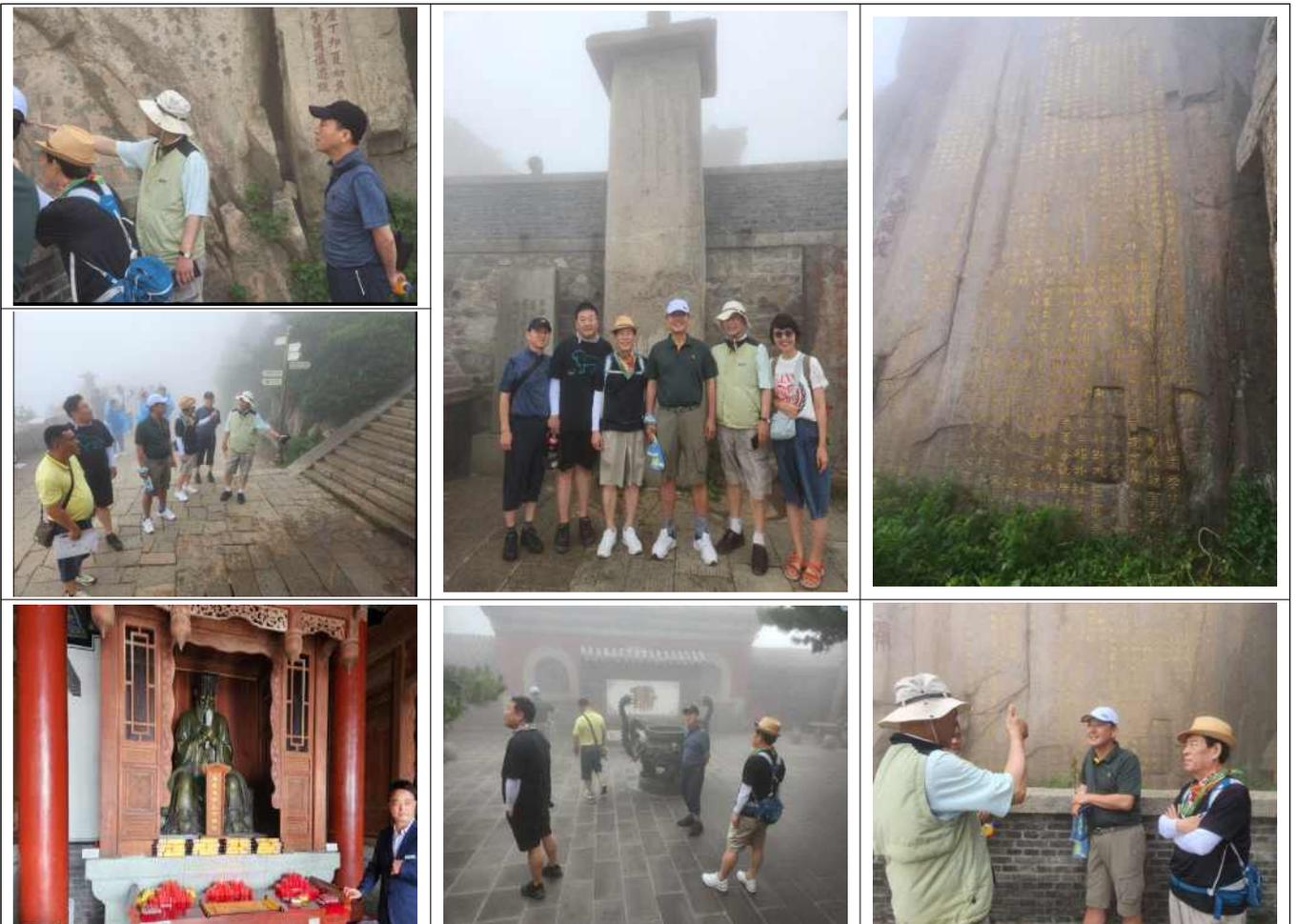
\* 유교와 도교문화의 성지. 오악(五嶽)중 최고. 오악독존(五嶽獨尊). 봉선(封禪)의식을 거행하던 곳. 진시황, 한무제, 당현종 등 72명의 황제가 봉선의식을 거행.(사서 기록에는 12명의 제왕이 등장했다고 함) 중국 민간에서는 이곳을 오르면 영생한다고 믿음. 계단 7412개

\* 고전에 전하는 일화: “苛政猛於虎.” 공자 일행이 태산 기슭을 여행하는데 한 여인이 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있었다. 공자가 자로에게 연유를 묻게 했다. 이곳에서 시아버지가 虎患으로 죽었고, 남편도 자식도 역시 호랑이에게 잡혀 먹었다는 것. 그럼 왜 이 곳을 떠나지 않느냐고 묻자, 마을에는 관리의 세금과 착취가 무서워 그렇다고 했다.(苛斂誅求) 이때 공자가 한탄하며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고 함. (『예기』 「단궁」)

\* 공자: “태산에 오르고 나니 천하가 작아 보인다.”(登泰山而小天下. 『맹자』 「진심상」)

\* 곽말약: “태산은 중국문화사의 국부적인 축소판.”

\* 고사명언: “泰山鳴動 鼠一匹.”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뿔만 높다 하더라.” (양사언 시조)



## ○ 곡부(曲阜)

\* 공자 고향. 1982년 공자유적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 『사기』 「주본기」에 의하면 염제(炎帝)가 이곳에 도읍을 정하고 황제(黃帝) 현원(軒轅) 또한 곡부에서 동쪽으로 8리 정도 떨어진 수구(壽丘)에서 태어남. 동이족의 수령 소호(少昊)도 이곳을 활동 근거지로 함. 곡부는 은나라부터 전국시대까지 34대 800년간 각 나라의 수도. 제후국 가운데 가장 오래 지탱.

\* 공자(B.C. 551~479): 유가의 대표사상가. 최고의 덕을 仁이라고 함. ‘극기복례(克己復禮)’ ‘애인(愛人)’ “효제(孝悌)는 인을 실천하는 근본.

### \* 공자 평가

- 현재 통용되는 공자에 관한 지식 대부분은 漢代 또는 그 이후에 나온 것. 공자 사후 그에 대한 전설은 각색되기 시작. 대부분의 기록은 기원전 100년경 서술된 『사기, 공자세가』. 19세기 崔述에 의하면 그 내용은 7,80%가 중상모략. 이처럼 된 이유는 “공자처럼 일단 한 문화의 영웅이 되면, 그의 생애 실제로 있었던 사건에 입각하기 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포부와 신념을 토대로 꾸며진다.” (H.G. 크릴) 공자 영웅 만들기가 성공하자 전에는 공자를 비판 공격하던 학파도 자연스레 그의 사상을 곡해하며 자파 사상가로 포장하기도 함. 공자를 전체주의자로 만든 법가가 대표. 이후로 원전으로 돌아가자 하며 공자 원문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 늘어남. 실증주의, 고증학.

- 손문: “공자와 맹자는 모두 민주주의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전목의 「선진제자계년」에서)

- H.G.크릴: “계몽주의로 알려진 철학적 운동의 직후 공자는 유럽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라이프니츠, 볼프, 볼테르를 비롯한 많은 철학자들과 정치가 문필가들이 자신의 논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의 이름과 사상을 이용하였고, 이런 과정에서 그들 자신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공자의 철학은 유럽 민주주의 이상의 발전 및 프랑스혁명의 배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프랑스 사상을 통하여 미국 민주주의 발전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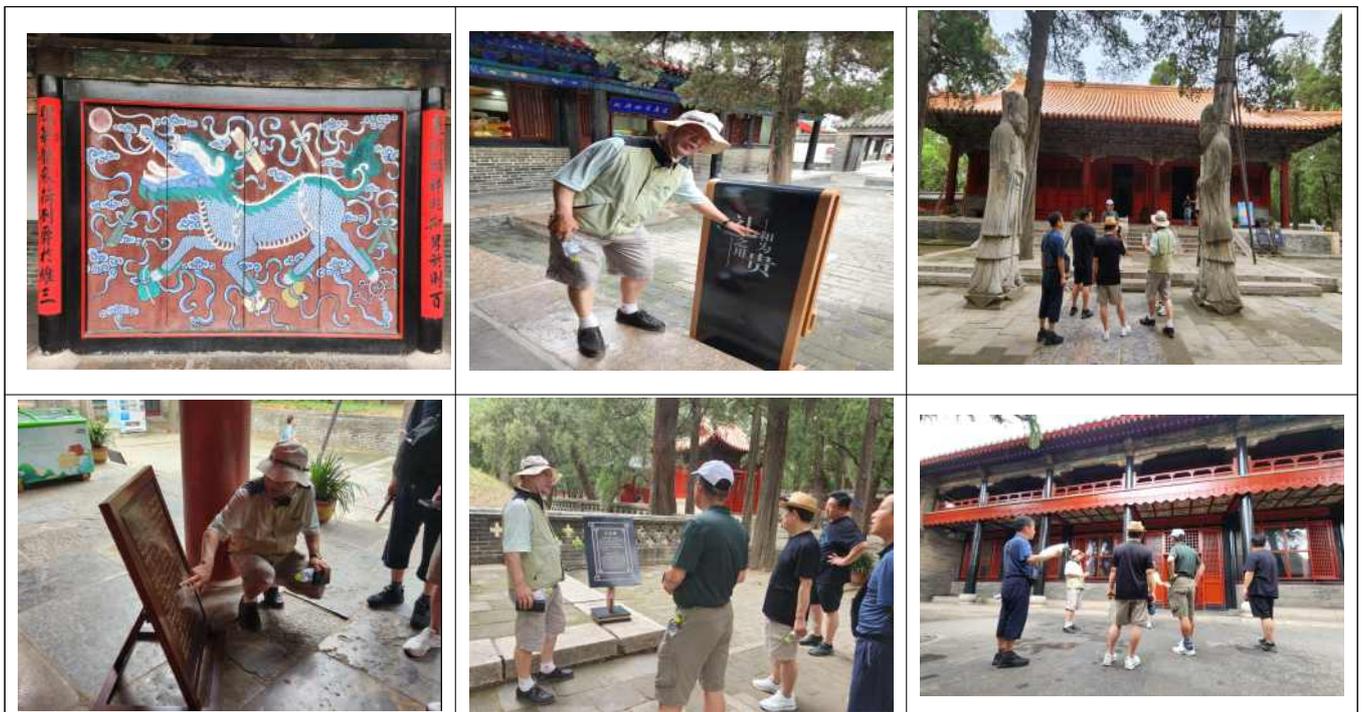
○ 공묘(孔廟): 공자사당

\* 규모 22만평, 남북 약 1km. 공자의 고택(본래는 초가집). 공자를 제사하는 곳.  
공자사후 魯 哀公 때부터 공자 추모하다가 당 태종(637년) 이후로 당송 양대에 걸쳐  
수많은 개·증축이 이뤄짐. 몽고 침입 때 불타 없어졌다가 원나라 때 12번에 걸친  
증수를 거쳐 원상태 회복. 현재 건물은 대개 명대 건축이고 청대 개축. 내부 나무  
대략 600년 수령. 향나무의 향으로 별레 無.



○ 공부(孔府): 공씨관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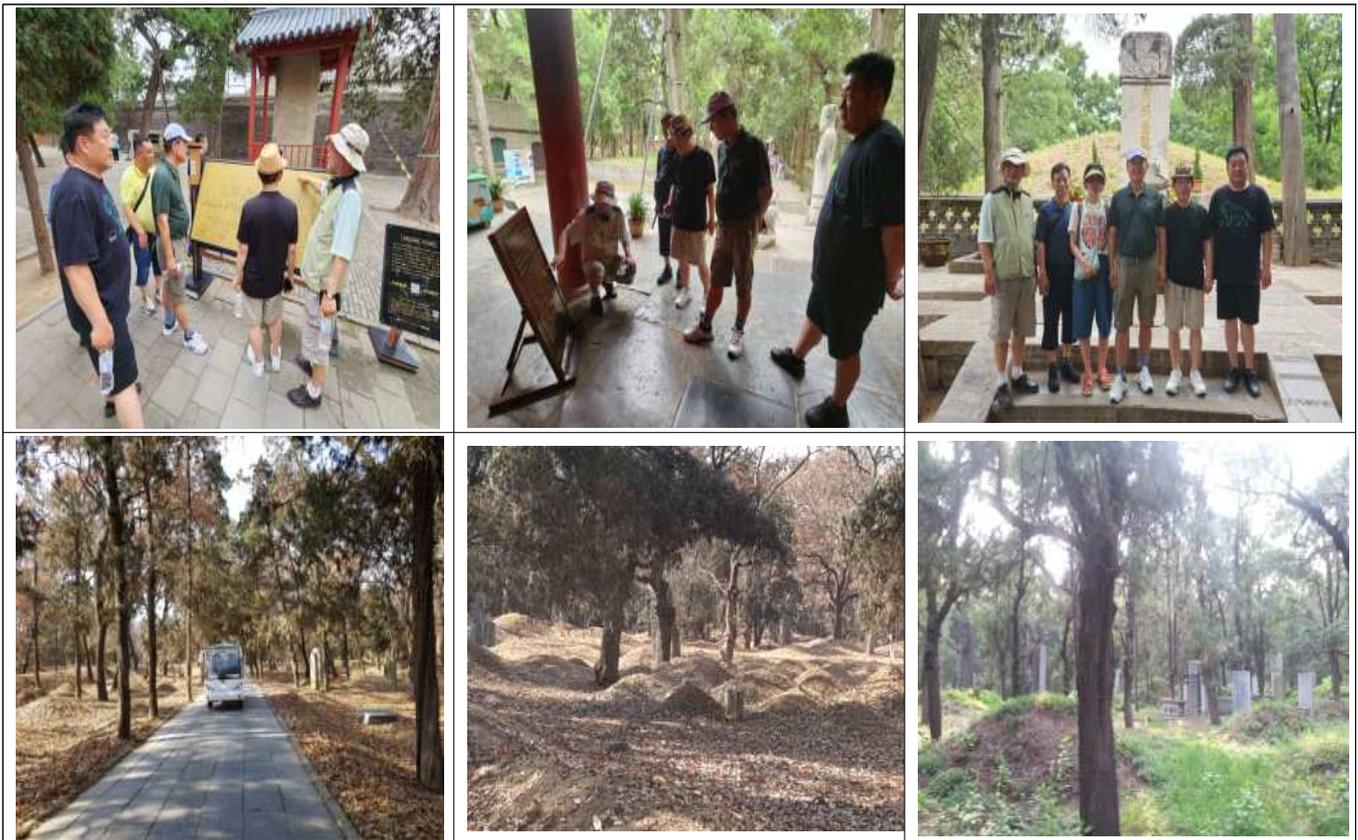
\* 총넓이 18만평. 역대 공자 후손들이 살던 저택 겸 관공서. 송대 寶元2년(1039) 건립 후  
여러 차례 개보수. 현재 건물은 청대 건축. 전형적인 봉건귀족의 장원으로 436개의 방을  
가진 광대하고 화려한 건물. 공씨의 위세를 알려줌



○ 공림(孔林): 공씨 가족묘원

- \* 지성림(至聖林). 공자 및 공씨 가족묘지. 신도(神道)가 1266m인 세계 최대의 가족묘지 200만평
- \* 공림에 3가지 많은 것: 무덤(10만 이상), 나무(제자들이 각기 3년상 치루고 심음-나무는 후손번창을 상징), 비석(3600여개)
- \* 공자:지성(至聖), \* 안자(顏淵):복성(復聖), \* 자사(子思):술성(述聖), \* 맹자:아성(亞聖)
- \* 지성선사(至聖先師): 공자의 호칭. 한국에서는 문선왕.
- \* 중봉(重峯) 조헌(趙憲, 1544~1592)의 상소: 정명(正名: 君君臣臣父父子子)에 입각, 왕도 아닌 공자를 문선왕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음. 중국처럼 지성선사(선생님)로 하자고 상소.
- \* 손자 자사묘: 기국술성공(沂國述聖公)
- \* 무덤의 위치: 아들을 데리고 손자를 안고 있는 모습.

父(공자)●		
		子(백어)●
	孫子(자사)●	



## ○ 니산(尼山) 서원: 공자탄생지

- \* 공자 탄생지. 니산의 원명은 니구산(尼丘山). 공자의 원명 공구(孔丘)의 이름 피휘해서 니산(尼山). 자는 중니(仲尼). 곡부에서 30km.
- \* 니산서원(孔廟): 공자와 공문12철 배향. 한대 이후 만들어져 역대 제왕들이 중수함. (※성군관대 인성교육센터, 경북 영주시 선비문화수련원과 MOU 체결)
- \* 관천정(觀川亭): 공자가 냇가 위에서 말했다. “가는 것이 이 물과 같구나! 밤낮을 그치지 않는도다.” (子在川上曰, “逝者如斯夫, 不舍晝夜.”)는 말을 회념하며 원나라 때(1336년) 건립.
- \* 부자동(夫子洞): 공자 어머니 안징재가 이 곳에서 기도해서 공자 낳았다고 함.
- \* 중화학(中和壑): 중화는 공자의 중심사상. 이 골짜기에서 나온 돌로 벼루를 만들어 사용. 魯硯.



○ 공자박물관, 공자대학당

- \* 공자동상: 높이 72m
- \* 공자박물관: 2018년 11월 26일 개관. 산둥성 곡부시 공자거리 100호
- \* 공씨 집안과 키: 공자 부친, 10척(공자가어, 本姓解)-230센티미터. 공자 7대손 孔騰, 9척 6촌(사기, 공자세가)-221.76센티미터.
- \* 선사시대 산동지역 사람들의 특징  
 “선사시대 산동지역 주민(예, 大汶口 문화)과 선사시대 중원지역 주민(예, 仰韶문화)의 체질적 특징은 비록 현대 몽골인인 동아시아형에 가깝기는 하지만 적지 않은 차이 또한 있다. 예를 들어 전자는 얼굴 부위가 비교적 넓고 이상구(梨狀口)가 약간 좁은 데 비해, 후자는 이와는 상반된다. 또 전자는 코 넓이가 중간정도인데, 후자는 코가 넓은 편이다. 그밖에도 전자는 남자의 평균키가 172센티미터인데, 후자는 168센티미터밖에 안된다.” (嚴文明, 「東夷文化的探索」 『嚴文明史前考古論集』 科學出版社, 1998년, 319~333쪽)



## ○ 산동성 박물관

\* 산동성 제남에 위치한 박물관

\* 용산문화(龍山文化): 중국 황하 중·하류 유역에서 양소(仰韶)문화에 이어 부흥했던 신석기시대 말기의 농경문화. 산동성 역성현(歷城縣) 용산진(龍山鎮)의 성자애(城子崖) 유적이 조사되었을 때 상하 2층인 문화층 중·하층에서 많은 석기·패기·골각기와 함께 흑색 간토기가 발견되어 황하 유역의 중요한 선사토기로 주목  
용산문화의 특징은 토기제작에 녹로를 사용하여 치밀하고 견고하게 달걀 모양으로 얇게 흑도(黑陶)를 만듦. 흑도의 기형(器形)에는 술·술잔·시루 등의 삼족기(三足器)가 있음

\* 석각예술전(石刻艺术殿), 명대전선전(明代战船殿), 동물표본전(动物标本殿), 제노귀보전(齐鲁瑰宝殿), 공룡화석전(恐龙化石殿), 서화전(书画殿), 고생물화석전(古生物化石殿), 고대전폐전(古代钱币殿) 등 여러 곳의 전시실로 구성

\* 석각예술전(石刻艺术殿), 명대전선전(明代战船殿), 동물표본전(动物标本殿), 제노귀보전(齐鲁瑰宝殿), 공룡화석전(恐龙化石殿), 서화전(书画殿), 고생물화석전(古生物化石殿), 고대전폐전(古代钱币殿) 등 여러 곳의 전시실로 구성



## 4 주 요 성 과

1. 한·중 효문화 교류 및 활성화를 위해 산동사회과학원, 산동대학, 산동사범대학 등을 방문하여 학술교류 및 협력관계 구축
    - 중국산동성 주요기관(산동대학, 산동사회과학원, 산동사범대학)과의 교류협력 강화
    - 주요기관과의 간담회와 특강을 통하여 한중유교·효문화 학술교류의 활성화 기반 마련 및 한·중 인적네트워크 구축
  
  2. 공자·맹자 고향 중국산동성 유교문화 및 한중 효문화 교류를 통한 대전유교문화·효문화 활성화 방안 모색
    - 유교문화의 본고장 산동성 공자·맹자 유적 답사를 통하여 대전 지역의 유교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에 관한 방향성 참고
    - 유교 효문화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유교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음
- ▶ 대전시의회, 한국효문화진흥원, 대전시와 유교의 본고장 중국산동성 유교 문화 및 효문화교류를 위한 주요기관과의 간담회 등 한·중 협력관계 구축

# 한중 유가문화 및 효사상 간담회 자료

<p><b>축사</b></p> <p style="text-align: right;">김기황 (한국효문화진흥원 원장)</p> <p>먼저 중국 산둥성 유교문화의 발상지 방문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뜨겁게 환영해주시고,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산둥대학 증진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p> <p>한국효문화진흥원은 2017년 중앙정부와 대전광역시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효문화 전문 교육 연구기관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효문화를 알리고 실천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p> <p>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과거 전통적 효는 헌신과 희생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현대적 효실천 방법으로 ‘칭찬’과 ‘감사’가 현대적 효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칭찬하기’ ‘감사하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p> <p>아무리 좋은 철학과 사상이라도 실천할 수 없는 것이라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효문화의 유구한 역사성을 존중해야 하고, 이를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날에 맞는 효실천 방법도 함께 탐구되어야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p> <p>다시 한번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증진우 교수님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번 산둥성 유교문화교류와 공자 맹자 관련 선진유교 효문화답사에 기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대전광역시 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p> <p>아무쪼록 이번 한중유교 효문화 세미나를 통해 양국이 서로 소통하며 발전적 미래를 지향하는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며 축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p>	<p><b>致辭</b></p> <p style="text-align: right;">金基晁 (韓國孝文化振興院 院長)</p> <p>首先，很高兴来到中国山东省儒家文化的发祥地。 我们要感谢山东大学曾振宇教授，对我们的热情接待和共同安排研讨会。</p> <p>韩国孝文化振兴院是2017年由保健福祉部和大田广域市设立的孝道文化专门机构。 我们在以研究和教育孝道文化为主的同时，努力让市民了解涵盖传统和现代的孝道文化。</p> <p>普通市民所认为的传统孝道，很难做到，因为它涉及到奉献和牺牲。 所以当我在思考如何用现代的、容易实践的方式来实践孝道时，我认为‘赞扬’和‘感恩’是符合现代孝道的，所以我正在开展这项运动。</p> <p>再好的哲学、伦理、意识形态，如果不能付诸实践，我认为也是没有意义的。 当然，孝道文化的源远流长是要尊重的，专业的研究者要深入研究。 而我认为适合今天的修孝方法也值得探讨。 我认为今天的讨论在这个意义上也非常重要。</p> <p>我再次感谢山東大學曾振宇教授。还要感谢在繁忙的立法活动中参加山东省儒家文化交流和孔孟孝道文化考察的大田广域市议会议员。</p> <p>希望韩中儒家孝道文化研讨会取得成功。 谢谢。</p>
---	--

## “대전시 동구 이사동 유교문화의 가치”

송인석 의원  
(대전광역시 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

대전을 보통 교통중심도시, 교육문화도시, 과학 도시라고 말합니다. 최근 발사에 성공한 인공 위성도 대전이 그 중심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주로 근대화 이후의 대전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전에는 이런 것 말고도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있습니다.

삼국시대 이전의 선사문화도 있고, 삼국시대의 백제와 신라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산성(山城)이 많아서 대전을 산성도시라 말하기도 합니다.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 와서 대전은 사상적인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조선시대 유학이었던 성리학이 대전에서 크게 확장 발전된 것입니다. 한국의 성리학은 경상도 중심의 영남학파와 경기도와 충청도 중심의 기호학파로 나뉘어 발전했습니다.

기호학파의 중심에는 대전이 있고, 또 그 중심에는 우암 송시열(1607~1689)이라는 위대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송시열은 조선을 대표하는 사상가, 교육자, 정치인입니다.

그분이 저의 조상이라는데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증진우 교수님께서도 공자의 제자 증자의 후손이라고 들었습니다. 증자는 중국 고대 사회 최고의 효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조상 송시열도 ‘예학(禮學)’의 대가이면서 효를 매우 강조한 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중국의 증씨 가문과 한국의 송씨 가문이 서로 교류하며 유학에서의 예와 효를 함께 논의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성리학을 대표하는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2~1571)과 울곡(栗谷) 이이(李珣, 1536~1586) 가운데, 송시열은 울곡 이이의 학문을 계승한 학자입니다.

송시열은 이이의 학문을 계승하며 조선시대를 성리학의 나라로 만드는 데 노력했습니다. 그런

## “大田東區二沙洞儒家文化历史的价值”

宋寅碩 議員  
(大田廣域市議會 豫算決算委員長)

大田通常被称为交通城市、教育城市和科学城市。最近，大田制造的人造卫星成功发射。

我觉得主要是大田现代化之后的样子。

但是，大田也有着悠久的历史文化。

三国时代以前就有先史文化，尤其是百济和新罗文化保存完好，据悉还建造了许多山城。这就是大田也被称为山城都市。

在高丽时代延续，在朝鲜时代蓬勃发展。特别是，我知道朝鲜时代的儒学，就是新儒学在大田得到了极大的发展。

韩国的新儒学分为以庆尚道为中心的岭南学派和以京畿道、忠清道为中心的畿湖学派而发展起来的。

畿湖學派的中心是大田，又是伟大的思想家宋时烈。

宋时烈是代表朝鲜的思想家、教育家和政治家。

他是我的祖先，我以此为荣幸。

据我所知，曾振宇教授也是孔子的弟子，曾子的后裔。

曾子被誉为中国古代社会最好的孝道。

我知道我的祖先宋时烈是一位‘礼學’大师，强调‘孝道’。

如果有机会，中国的曾氏家門和韩国的宋氏家門，在相互交流，讨论礼學和孝道，那很有意义的。

韩国新儒学的代表人物是退溪李滉和栗谷李珣，宋时烈是继承栗谷李珣的思想。

他试图用新儒学来纠正国家的精神纪律，努力使朝鲜王朝成为儒學国家。

가운데 『송자대전(宋子大全)』이란 엄청난 책을 저술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름 끝에 공자, 맹자, 증자, 주자 처럼 자(子)자 붙여 써서 존칭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송시열을 송자라고 부른 것이 거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송시열의 학문이 그만큼 높고 위대했으며, 또 그런 그를 존경하며 따랐음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송시열이 대전에서 공부해서 성공한 데에는 그 조상들의 은덕이 컸음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을 은진송씨(恩津宋氏)라고 하는데, 그들이 대전에 정착해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말에서 조선초기에 해당합니다.

이후로 송씨들은 대전에서 활동하며 한국 성리학, 곧 기호학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저의 지역구 대전시 동구가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대전시 동구 이사동二沙洞은 오래전부터 유교문화가 뿌리내린 곳입니다.

제사 지내는 재실(齋室)이 16곳, 1천기 이상의 은진송씨 조상묘역이 있습니다.

중국 곡부에 공씨집안 가족묘가 대규모로 있듯, 한국에는 송씨가문 가족묘원이 대규모로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송씨 가족 묘원이 세계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금년 대전광역시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유교문화진흥 사업이 동구 이사동에서 그 첫삽을 떴습니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변에는 성씨뿌리 조형물 공원, 족보박물관, 한국효문화진흥원이 있어 같은 주제로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교문화의 본고장 산동성 제남시와 곡부시, 추성시를 방문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중국 산동성 유교문화 답사와 학술행사는 대전의 동구 유교문화진흥 사업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유교 전문가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중국의 여러 성씨들과 전문가분이 한국 대전의 성씨 뿌리공원, 족보박물관, 한국효문화진흥원, 동구 이사동의 유교민속마을을 방문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他写了一本名为《宋子大全》的好书。

宋时烈能够在大田留学取得成功，很大程度上得益于祖先的恩德。

在韩国，好像孔子、孟子、曾子、朱子，很少用“子”字来表示敬意。把宋时烈称为宋子是唯一的。

宋时烈的学问是那么的高大上。学生们尊敬他，追随他。

他们被称为恩津宋氏家族，他们定居在大田，从高丽后期到朝鲜初期开始活动。

以后宋氏活动在大田，成为韩国新儒学(畿湖学派)的中心。

韩国儒学的中心是大田东区，我作为市议会议员活动的地区。

在这里是我的选区大田市东区二沙洞，是儒家文化长期扎根的地方。

这里有举行宗祠祭祀的祠堂16座，宋氏家族的祖先墓地1千多基。

正如中国曲阜有大规模孔氏家族墓地一样，韩国也有大规模宋氏家族墓地。

有的专家说，宋氏墓地为世界文化遗产的价值。

今年，大田广域市和中央政府支持的儒家文化推广项目在东区二沙洞启动。

我们的目标是明年完成。

好在附近有姓氏根雕公园、家谱博物馆、韩国孝文化振兴院，我觉得可以做同样主题的生意。

就此而言，到儒家文化之乡山东省济南、曲阜和鄒城参观也很有意义。

我相信在中国山东大學举办的儒家文化探索学术会议，对大田东区儒家文化推广项目有很大的帮助。

我们请求儒家专家继续关注与合作。

此外，敬请中国诸姓氏和专家参观韩国东区二沙洞、姓根公园、家谱博物馆、韩国孝文化振兴院。

欢迎您们的光临。

谢谢。

## “효와 복지, 그리고 환경”

박종선 의원  
(대전광역시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대전광역시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 의원입니다. 복지는 현대사회 어느 민족 어느 나라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중국도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복지사회를 위한 기본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는 기본적으로 정책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재정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실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재정적 뒷받침이 없다면 복지사회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에는 옛날부터 경제적 뒷받침이 부족해도 가능했던 복지기능과 활동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효사상입니다. 효는 돈이 없어도 공경하는 마음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효도할 효(孝)자는 자녀가 늙으신 부모를 짊어지고 있는 형상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효를 할 수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유교의 공자도 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공경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와 효를 함께 적용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는 제도이고 정책이며 재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실현 가능합니다. 효는 지극한 정성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합니다. 돈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효와 복지를 함께 적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孝文化中的福利和环境”

朴鍾善 議員  
(大田廣域市 福祉環境委員會)

我是大田廣域市福祉環境委員會朴鍾善議員。福利是現代社會任何一個民族、任何一個民族的重要課題。我了解到中國也在為建設福利社會做大量的投入和努力。在韓國，很多財政經費也被投入建設福利社會。我想說，福利社會的基本精神比什麼都重要。福利在政策和制度也重要，但只有在財政支持一下才有可能。沒有經濟支持，福利社會是不可能的。然而，在韓國和中國，自古以來就存在即即使在沒有錢的環境中也可以進行的福利功能和活動。就是孝道的思想。孝不用錢也可以孝道，只要有一顆恭敬的心情。‘孝’字是子背着年邁父母的形象。錢多，沒有恭敬之心，也無法付諸實踐。儒家孔子也說過，在孝道最重要的內容是敬心。如果是這樣，福利和孝道一起應用，似乎可以期待很好的結果。福利是制度，是政策，要有資金做後盾才能實現。孝以至誠至敬之心為本。心情比錢，更重要。所以我覺得孝道和福利一起運用，會有協同

<p>이런 생각에서 저는 오래전부터 효교육의 중요성을 말해왔습니다. 교육 현장으로 달려가 직접 학생들에게 효를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효와 복지를 함께 강조하며 정책을 제안하고 때로는 현장으로 달려가 직접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효의 정신을 복지제도에 정착시키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복지정책에 효정신이 가미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p> <p>다음은 효와 자연환경과의 상관성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자연환경과 효와의 관계를 말하려고 합니다. 공자는 《예기》에서 자연환경을 함부로 훼손하면 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연환경 보호가 효라는 말입니다. 또 맹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환경을 잘 가꾸면 동네 노인분들이 고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주변에 뽕나무를 많이 심으면 노인분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고 여름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p> <p>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아들이 태어나면 소나무를 심고, 딸이 태어나면 오동나무를 심는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결혼할 때 소나무로 집을 지어주고, 딸에게는 시집갈 때 오동나무로 장롱을 짜주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자연을 활용한 자녀사랑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연환경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자연환경 보호는 부모에 대한 효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자녀사랑에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주변에 뽕나무와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뽕나무로는 맛있는 열매(오디)를 따서 부모님께 효도했고, 겨울에는 따뜻한</p>	<p>效应。 我考虑到这一点，一直在谈论孝道教育的重要性。还教导学生孝道。</p> <p>目前，大田广域市议会福利与环境委员会将孝道与福利放在一起，提出政策建议，有时还会跑到现场直接参与活动。</p> <p>因为我们有强烈的愿望要在福利制度中树立孝道精神。 我们会继续致力将孝道加入我们的福利政策。</p> <p>下一个问题是孝道文化和环境问题的相关性。 在这里，我主要讲一下，自然环境与孝道的关系。 孔子在《礼记》中说，肆意破坏自然环境不是孝道。 意思是保护自然环境就是孝道。 孟子也说过，善待身边的自然，老人就不会受苦。</p> <p>比如，据说如果在周边种很多桑树，老人就可以冬暖夏凉。</p> <p>在韩国，自古就有生儿子种松树，生女儿种桐树的说法。 就是儿子出嫁给儿子盖房子，女儿出嫁给女儿织衣柜。</p> <p>这是关于爱孩子和利用自然环境。 于是，带着儿女的爱，我更加珍惜和热爱自然环境。 保护自然环境不仅适用于对父母的孝道，也适用于对孩子的爱。</p> <p>而且，子女们在他们周围种了桑树和柿子树。他们孝顺父母，从桑树上采摘美味的果实（桑葚），在冬天，他们制作暖和的衣服供养</p>
--	--

옷을 만들어 봉양했습니다. 감나무에서는 나  
이 들어 치아가 나빠지신 어른들이 좋아하는  
홍시를 따서 대접한다는 의미가 깃들어 있습  
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소나무와 오  
동나무는 부모의 자녀사랑을 상징하고, 뽕나  
무와 감나무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공경을 상  
징하는 나무로 내려왔습니다. 사랑과 공경의  
의미가 담겨 있는 나무를 심고 잘 가꾸는 것  
이 우리 농촌의 모습이었습니다. 효가 자연환  
경과 무관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전해오는 말이기 때문에 문헌  
이나 경전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와 환경문제를 다루는 복지환경위원회가  
효문화와 깊이 관계되어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중국 산둥성 유교효문화답  
사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정활동하는 대전은 효문화 중심도시입  
니다.

그 중심에 한국효문화진흥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 산둥대학 유학고등연구원, 산둥  
사회과학원의 많은 학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것도 한국효문화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이 같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효문화진흥원이 대전의 유교와 효  
문화를 모두 아우르는 중심 기관이 되기를 기  
대합니다.

산둥대학 유관 학자분들께서도 우리 한국효문  
화진흥원의 발전과 확장을 위해 많은 도움과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 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기황 원장  
님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또 이 일을 위해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  
신 산둥대학 증진우 교수님께도 뜨거운 박수  
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父母。柿子树有采摘和盛放柿子的意味，是  
年老牙齿退化的成年人所喜爱的。

这样，在韩国，自古以来，松树和桐树象征  
着父母对子女的爱，桑树和柿子树作为象征子  
女对父母的尊敬的树而流传下来。

种树，爱护树木，是我们农村的形象。  
说明孝道与自然环境有着深厚的关系。

当然，既然这些内容是流传下来的，我认为  
它不是基于文献或经文的。

最后结论一下。

我说了我所在的福利和环境委员会与孝文化  
有很深的关系。

这次到访中国山东省的儒家孝道文化也很有  
意义。我作为立法者活跃的大田是孝道文化  
的中心。

中心是韩国孝文化振兴院。这次能够在山东  
大学儒学高等研究院、山东社会科学院的多  
位学者进行交流，也与韩国孝文化振兴院有  
关。

我希望韩国孝文化振兴院成为大田融合儒学  
和孝道文化的中心机构。

我希望山东大学，有关学者也为韩国孝文化  
振兴院的发展和扩张提供很多帮助。

为这部事业付出辛勤努力的金基晃院长送上  
热烈的拍手。

也对山东大学曾振宇教授为这项工作提供如  
此宝贵的机会，表示热烈的感谢。  
谢谢。

# 中韓孝文化國際會議

## 會議議程

會議時間: 2023年6月26日 下午3:00-5:00  
會議地點: 山東大學知新樓A座2105會議室

主辦  
山東大學曾子研究所  
韓國大田廣城市議會  
韓國孝文化振興院

協辦  
曾智明“曾子學術基金”  
曾子研究院  
中國哲學史學會曾子研究會  
山東大學儒學高等研究院  
儒家文明協同創新中心(山東大學)

中國·濟南

## 會議議程

致辭、合影 (15:00-15:30)

主持 金德均 (韓國孝文化振興院 研究團長)  
致辭 金基冕 (韓國孝文化振興院 院長)  
曾振宇 (山東大學儒學高等研究院教授、山東大學曾子研究所所長)  
合影

第一場學術討論 (15:30-16:15) (每人發言15分鐘, 討論15分鐘)

主持人 陳晨捷 (山東大學儒學高等研究院 副教授)  
發言人 宋寅碩 (大田廣城市議會 預算決算委員長)  
《大田儒家文化歷史的價值》  
發言人 朴鍾善 (大田廣城市議會 環境福祉委員)  
《孝文化中的環境與福利》

第二場學術討論 (16:30-17:45) (每人發言15分鐘, 討論15分鐘)

主持人 金德均 (韓國孝文化振興院 研究團長)  
發言人 曾振宇 (山東大學儒學高等研究院教授、山東大學曾子研究所所長)  
《“見父自然知孝”: 王陽明孝論漫議》  
發言人 曾美珠 (山東大學儒學高等研究院 副教授)  
《〈論語〉中的“孝順之道”》  
發言人 陳晨捷 (山東大學儒學高等研究院 副教授)  
《孝道之外——論儒家仁道的多重進路》  
發言人 李富強 (山東大學儒學高等研究院 副教授)  
《從血緣親情到禮義教化: 荀子對孝道合理性證明的創造性構建》

閉幕式 (17:45-18:00)

會議總結 曾振宇 (山東大學儒學高等研究院教授、山東大學曾子研究所所長)

## 뿌리로 깊은 사랑이었다 왕 양명 (Wang Yangming)의 효도에 대한 토론

Zeng Zhenyu 교수

“아버지를 보고 효도를 아는 것: 양심의 보편적인 필연성을 효도로 해석

기원에서 “효도의 원칙”을 보여줍니다.

양심은 인간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으며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화된 양심이 나무를 자르고 풀을 길어오는 경험적 세계에서 어떻게 외부화되고, 보편적인 인본주의적 가치를 지닌 의미있는 세계를 건설하면서 스스로를 실현하는 것이 왕 양명의 철학 체계에서 문재 의식이다.

왕 양명 (Wang Yangming)은 종종 “양심은 하늘의 이성”이라고 말했다.

양심과 하늘 이성의 차이는 다만 하늘의 이성은 “조용한” 곳에서, 양심은 “활동하는” 곳에서 세워지며, 한 마음 속에 두 개의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확한 영적 인식”과 “자연적 인식”의 상태, 즉 “정정한 마음”이 “존재 문적 마음”으로 들어갈 때

양심과 효도의 관계

양심과 효도의 관계에서 양심은 본질이며, “의도”는 사용입니다. “의도”는 단순히 생각이나 욕망과 동일시될 수 없지만, 하늘의 양심의 인도를 받는 “의도”가 진정한 의도입니다. “의미는 문재입니다. 그것이 친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친척은 사용입니다.”

“지식은 마음의 본질입니다. 마음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아버

지를 보는 것은 자연스럽게 효도를 알고, 형제를 보는 것은 자연스럽게 형제들을 만듭니다. 아이들이 무릎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연민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자연”은 아마도 첸 바이사 (Chen Baisha)의 “자연”에 대한 생각의 영향을 받아 네 번 나타납니다. 왕 양명 (Wang Yangming)의 목적은 효도가 “상자”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효도는 자연스럽게 스며 나온다. 효도는 강령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며, 효도는 인식 문적 대상이 아니며 윤리적 인 “타자”도 아니라 미적 영역의 의미에서 자연스러운 미덕입니다.

효도와 우정, 신실, 충성, 신실과 같은 미덕 사이의 논리적 관계는 무엇입니까?

왕자는 자신의 세 분야를 “친족”, “자비”, “사랑”으로 나열했습니다.

“친절”, “자비” 및 “사물”에 대한 사랑은 “자비로운 사랑”과 깊은 수준에 속하며, “자비”와 “사물”에 대한 사랑의 사랑은 친척의 사랑에서 추론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왕자의 양심이 아니라 친척의 양심에서 미래를 확장하여 원본을 잃고 지부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왕 양명 (Wang Yangming)은 “양심은 오직 하나이며, 전염병을 볼 때 충분하다”고 믿는다. “이 양심에”, “애정”은 효도입니다. 형제를 따르는 “이 양심에” 순종하는 것은 심정성입니다. “이 양심에는 충실합니다. 우정과 신실함은 각각 불문의 효도에서 충성을 추론하기보다는 양심의 “의지”에서 직접 파생됩니다. 효도는 본질이 아니며 양심은 본질입니다. “양심을 미적으로 바꾸는 것”, “효도와 신실은 모두 양심의 일부입니다.”

“순간적” 양심의 현실적인 성격

왕양의 "진실한 연민"으로 부모를 대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효도를 나타냅니다. 왕의 얼굴에 "진실한 연민"은 자연스럽게 소상하게 나타납니다. 낯선 사람을 앞에서 "성실과 연민"은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제시됩니다. 왕의 얼굴에 있는 "성실과 연민"은 자연스럽게 충성심으로 나타납니다. "그저 진실 어린 연민일 뿐이야."



정의는 원래 '백축한'을 의미하며 불교의 '무의미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방황상'은 인간의 주관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실천적 합리성을 강조하며, 사람들의 진실하고 진실한 감정적 인 울어짐을 강조하고, 하늘의 어성에 대한 마음의 부름을 강조합니다. "진실한 연민"의 느낌이 흐려지면 부모 앞에서 효도를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왕 양명 (Wang Yangming)의 효도 이론: "부처님을 사용하여 유교에 들어가기"

"부처님의 승관에 덕사", 왕 양명 (Wang Yangming)은 변으로 베트남으로 돌아와 예지 산에 양명 동굴 (Yangming Cave)을 건설하고 밤낮으로 티오 (Tao)를 연습하여 "진공 형태 훈련 방법"을 가르쳤다. 동시에 그는 불교 서적 공부에 전념했으며 심지어 승려가 되기 위해 "세상을 버리고 싶었습니다."

유교의 "부모의 본성에 대한 사랑"과 깨달음을 마시는 불교의 "카스트"와 함께 고위 승려를 "말하거나 경멸하지 마십시오." "오랫동안 깨달음을 대한 생각은 어린 시절, 인간 본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종의 멸종, 비정통적이기도 합니다. 왕 양명 (Wang Yangming)은 "카스트"와 유교의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사이에 진화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각각은 선재와 보살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식과 행동의 단일성"의 예와 함께 "효도를 실천하는 방법"

왕 양명 (Wang Yangming)의 철학에서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시간적 순서가 없으며,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같은 행동의 두 가지 다른 차원에 속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지식은 논리적으로 선을 포함하고, 행동은 논리적으로 지식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쑤 아이 (Xu Ai)는 지식면에서 사람들은 '아버지는 효도가 되어야 하고 형제는 형제 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상 생활에서 종종 '효도가 될 수 없고 형제가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분명히 두 가지"라고 말했다."

왕 양명 (Wang Yangming)은 지식과 행동에는 '존재론적 지식과 행동'과 '비 존재론적 지식과 행동'이 있으며 "이것은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 차단되었으며 지식과 행동의 존재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알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존재론적 지식과 행동'과 '비 존재론적 지식과 행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은둔론적 지식과 행동'은 양심의 지지에 따라 지식과 행동이 분리되지 않고 지식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 "진정한 지식"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야오 슌 하트 (Yao Shun Heart)"을 재배하는 방법

"야오 슌 하트 (Yao Shun Heart)"의 재배는 아이들의 교육으로 시작되어야 하며 "양육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재미와 두려움"이 특징이므로 계몽 교육은 얇은 곳에서 깊은 곳에 영향을 공급하는 불바람과 비와 같아야 합니다. "그들의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 노래와 시를 유혹하고, 위엄을 엄숙하게 하는 의식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인식을 열기 위해 책을 읽도록 풍자하십시오."

왕 양명 (Wang Yangming)은 계몽 교육의 첫 번째 교훈을 옹호했다: "효도, 성실, 예절, 정직 만이 특별한 임무가 되어야 한다." 인간 윤리의 "여덟 가지 덕목" 중 효도

가 첫 번째입니다. 그의 경력 중에도 왕 양명 (Wang Yangming)은 아들 왕 쑤젠 (Wang Zhengxian)에게 "부지런히 공부하고 동생에게 효도하라"고 훈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의 교수 경력에서 왕 양명 (Wang Yangming)은 제자들에게 매일 수업에 참석하기 전에 네 가지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을 엄격히 요구하며, 처음 두 질문은 "집에서, 사람과 경외심, 당신은 정말로 정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따뜻함, 세련됨, 결단력, 지방의 의식을 결함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움은 양심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부끄러움은 양심을 일깨우는 감정적 장치입니다

양심에 지체된 결함이 있는지 여부

주시 (Zhu Xi)는 연민, 수치심, 사임, 울고 그들이 보내진 애정에 속하며, 자비의, 지혜는 미개발 본성이며, 마음은 감정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왕 양명 (Wang Yangming)은 통정심, 부끄러움, 사임, 울고 그들에 대한 감정, 자비, 예의 및 지혜는 모두 양심의 '미덕'이며 Zhu Xi가 언급 한 "미개발 된 본성"과 "발전된 감정" 사이에는 구별이 없다고 믿는다.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왕을 만나면 충성한다."

제자 (Lu Yuanjing) 은 "양심에도 시작이 있습니까?" 왕 양명 (Wang Yangming)은 양심은 존재론적 수준과 숭배 수준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존재론적 관점에서 볼 때, 마음의 본질인 양심은 시작이 없고, 양심의 본질에는 비기원 같은 것도 없다. 경험적 세계의 수준에서 양심은 때때로 모호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현실적 사고"에서 "존재론적 사고"로 신속하게 되돌리는 방법

은 왕 양명의 철학적 체계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이론적 문제였으며, 이는 왕명의 철학적 틀에서 중요한 개념 인 "수치심"으로 이어진다.

"부끄러움"은 인간 본성에 뿌리를 둔 원래의 감정이 속하며, 부끄러움의 발생은 도덕적 인격의 유지에 기반한 사람들의 심리에서 가치 충돌입니다.

부끄러움의 중요성은 부끄러움이 양심을 일깨우는 감정적 장치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일의 이론에 대한 효도

첫째, 이성과 절제, 왕 양명 (Wang Yangming)은 정의가 "또한 자체 중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천상의 양심은 "마음의 본질"이고 "중립화"는 정의의 고유한 규범 성입니다.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자연스러운 양심 사이에는 약간의 긴장이 있습니다.

감정과 하늘의 양심 사이의 관계를 다룰 때 "적당히 중재 할 필요가 있다." 루 쑹 (Lu Cheng) 이 홍로사원에서 재직하는 동안 그는 가족으로부터 아이가 중병에 걸리고 상심하며 "매우 우울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왕 양명 (Wang Yangming)은 그를 위로하며 "지금은 열심히 일할 때다."

둘째, 몸과 마음의 단일성입니다. "불교 가족은 단계적이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현실입니다. 우 유교는 단계적이지만 실제로는 단계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이런 종류의 '비 출현'은 실제로 삶과 죽음의 바다에서 자신에게 '몰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 이러한 '기대'의 본질은 '이기심'이다. 부모 앞에서 양심의 마음은 '친절하게 그를 불러줍니다.' 군주 앞에서 양심은 자연스럽게 그를 의로 불러 보냅니다.' 부모 앞에서 양심은 자연스럽게 그에게로 돌아옵니다.' 유교는 인간 윤리를 '환상적'으로 간주하지 않았으며, 회피하지 않으며, 편협증이 없으며, 이것이 바로 유교와 불교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하느님입니다’

‘양심은 하늘의 이성이다’는 두 가지 상황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같은 구절에서 양심과 하늘의 이성이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하늘의 이성을 지키라.’ 하늘의 이성은 영원하고 현대적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으며 끝이 없습니다. 하늘의 이성은 양심이며, 전 가지 생각은 양심적일 뿐입니다. “내 마음의 양심, 이른바 천상의 이성, 내 양심의 하늘 이성에 따르면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모든 것이 합리적입니다. 내 마음의 양심에, 알에, 모든 것을 좋게 가진 사람,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사울입니다. 마음과 이성과 하나인 것입니다.”

둘째, 왕 양명(Wang Yangming)이 여러 차례 말한 하늘 원칙의 실제 의미는 양심이다. “나는 이 마음이 하늘에서 순결하고 아무도 바라지 않는 이기심이 없기를 원하며, 이것이 또한 거룩함의 공덕이다.” 그는 이 마음이 인간의 욕망 없이 순수하고 이기적이기를 원할 것이며, 팔명이 선행되지 않는 한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식별해야 할 문제 (1)

첫째, 정의는 외부 객관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의는 인간의 의지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객관적인 정신입니까?

‘정의’가 인간의 영적 의식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루상산(Lu Xiangshan)과 주시(Zhu Xi)는 분명히 수렴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는 추상적 순수 개념이며, 정의는 추상적 인 논리적 세계에 존재하지만 경험의 세계에 대한 존재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의는 외부 방향과 순도가 특징입니다. 즉, 천상의 이성은 객관적인 영의 ‘실체’이다. 주시(Zhu Xi)와 루상산(Lu Xiangshan)

은 왕 양명(Wang Yangming)과 매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 방식과 이론적 틀의 ‘형이상학 적·형이상학 적·이론법’은 왕 양명(Wang Yangming)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왕 양명(Wang Yangming)의 이데올로기 체계에서 하늘의 이성은 마음의 이유 일 뿐이며, “마음 밖은 불합리하다”

식별해야 할 문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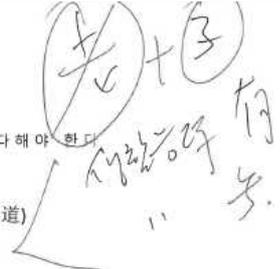
왕 양명(Wang Yangming)이 언급 한 ‘마음’은 ‘존재 론적 마음’과 ‘현실적 마음’으로 나뉩니다. ‘깨달음’, ‘자연 인식’에 대한 반복적 인 언급은 또한 주제의 ‘본능’을 강조합니다. “인식”은 자연 지식이 아니라 의식적인 지식입니다.

대승 신앙 이론 : “모든 존재의 마음”에는 “마음은 문처럼 진실하다”와 “마음은 태어나고 파괴된다”라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마음은 정말로 문과 같다”는 것은 문이고, “마음은 태어나고 파괴된다”는 사용이며, 둘 사이의 관계는 “하나가 다르지 않다”와 “둘이 둘이 아니다”입니다.

“마음은 문과 같다”와 “마음은 태어나고 파괴된다”의 차이는 “인식”과 “무인식”입니다.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 대승 신앙 이론은 구체적으로 “초기 인식”, “유사 인식”, “무작위 인식” 및 “공극적 인식”으로 나뉘어 “정신적 본능”이론을 완성합니다.

"논어"의 "효도"는  
曾美珠

첫째, 효를 행하려면 반드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부모가 의지하지 않게 한다  
셋째, 부모를 평생 흠모하는 효도(孝道)



효를 행하려면 반드시 전력을 다해야 한다  
자하가 말하기를, "어질고 어질고 착한 사람은 얼굴빛을 바꾸어 부모를 섬길 때 힘을 다할 수 있고, 임금을 섬길 때 자신의 몸을 표현할 수 있으며, 친구를 사귄 때 그 앞에 신용이 있다. 아직 배우지 않았다고 해도 나는 반드시 배웠다"고 했다. (학이편 1)

성의를 다하여 행하다.  
자하가 효에게 문안하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색이 어렵다. 제자가 있어서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 있고, 술과 음식이 선생에게 잔잔하니, 이것이 효라고 여겼는가? 「정치 2」

효자가 부모를 섬기므로 난처한 표정을 짓고 화목하게 지낸다.  
주자가 말씀하셨다. 효자의 경우 길이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화목한 것이 있고, 온화한데가 있으면 반드시 유쾌한 기색이 있고 유쾌한 얼굴이 있으면 반드시 부드러운

은 용모가 있다. (2) 효도(孝道)는 효도(孝道)가 아닌 효도(孝道)이다.

전목: 사람의 얼굴, 즉 그 내심의 진정이 드러나고 있을 때 안색이 어려운 것은 여전히 마음이 어려운 것이다.

아들이 유유히 상도를 문안하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늘의 효자는 능히 보양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견마는 모두 기를 수 있고 불경하면 어찌 다르겠는가? 「정치 2」 경(敬), 상가, 성(性).

공자왈: 부모를 섬기는데 몇 가지 간언을 해야 한다. 뜻을 보고 따르지 않고 존경하면서도 어기지 않으며 수고해도 원망하지 않는다. (이인편 4)

몇개, 몇개, 은연중에 완곡하다. 일, 근심, 일.

전목: 부자가족이 함께 지내며 정과 의리를 다하여야 한다. 자녀로서 의로운 처지를 두고서는 더구나 부모에 대한 정을 상하게 한다.

「례기」에서 말하기를 명령에 따라 분노하지 않고 사소한 간언에도 게으르지 않으며 수고하면서도 원망하지 않으니 그야말로 효라고 할 수 있다.

전상은 몇번 간하였지만 범하지 않았으며 또 어기지 않고 거역하지 않으며 험들지만 원망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지 마라.

부모님께 의지할 데 없는 근심을 드리다

공자왈:부모가 계시면 멀리 떠나지 않는다.해임을 지려  
면 일정한 방향이 있어야 한다.(웃음)

방향, 계획.

여행을 하려면 그곳이 있어야 하고, 친척을 사귀려면 자  
신이 있는 곳을 알면 걱정이 없어야 한다.

《논어고의》:부모로 하여금 집걱정을 하지 않게 한  
다.

맹무백이 효를 묻다.공자왈:부모는 오직 자신의 병 때문  
에 근심한다. 「정치 2」

「논어의소(論語義疏)」에서 말하기를 사람의 자식은  
늘 신중하게 자처하고 비법을 행하지 않으며 부모를 근  
심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약정자춘:군자는 일거일동은 부모를 잊지 못하고, 말을  
한 번 하면 부모를 잊지 못한다.옛길을 걸지 않고 배를  
띄우지 않으면 선친의 시신으로 감히 항해하지 못할것  
이며 그러므로 악은 입에서 나오지 않고 분노는 자기보  
다 못하다.그 후 자신의 몸을 욕되게 하지 않고, 어버이  
를 근심하지 않으면 효라고 할 수 있다.

「사서초문권」에서 부모의 마음을 마음으로 해야 가  
장 깊이 체현할수 있다고 하였다.

효는 평생 부모를 흠모한다

공자왈:부모의 나이를 모르면 안 된다.한편으로는 기쁘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다.(웃음)

알아오,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어요.항상 마음속에  
메아리치다.부모님의 연세를 늘 알면 장수하신 것을 기  
쁘기도하고, 노쇠하신 것을 두려워하기도 한다.(공자, 논  
어, 가족명언)

「논어(論語)의(古義)」에서 말하기를, 장수하는 것을  
보면 기쁘고, 쇠퇴하는 것을 보면 두렵다고 하였다.사귀  
는 것을 좋아하고 두려워하지만, 친척을 사랑하는 마음  
은 스스로 억제할 수가 없다.

증자가 병이 나서 제자들을 불러 말하기를"내게 말씀하  
라!아닙니다!시에서는"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심연에 다다  
른 것 같고 살얼음을 밟는 것 같다"고 했다.이제 나는  
남편을 면하게 되었다!임마!(태백편 8)

주자:증자는 평소에 몸이 부모에게 받은 것을 감히 훼손  
하지 못하였으므로, 제자로 하여금 금금하여 보게 하였  
다.증자는 자기가 보관한 모든 문인들을 보고 자기가 보

관한 어려움을 이렇게 말하였다.그러나 그가 죽었을 때,  
그는 상처를 입지 않았다.증자는 죽을 때까지도 언행이  
일치하였도다!

정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끝이라고 하고, 소인은 죽음이  
라고 하였다.그는 자신의 삶을 보존하는 것이 자신의 일  
을 끝내는 것이니,이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되돌리는  
것을 면하게 되었다.

윤씨네 왈:부모가 완전하여 낳았고, 아들이 완전하여 돌  
아왔다.증자가 임종(任終)할 때 손발을 말한 것도 이 때  
문이다.도를 얻은 것이 없다면, 이처럼 할 수 있겠는가?

陈晨捷:《孝道之外——论儒家仁道的多重进路》

전진첩:《효도와 유가인도의 다중진로에 대하여》

첫째, 전통 유교 효도의 대한 근대적 비판과 당대의 도전  
지난 세기초에 신문화운동의 주창자들은 전통적인 봉건제도의 핵심과 근핵은  
기묘한 가정을 격렬하게 비판하고 개인주의를 권장하였다.

서양 민족은 개인을 봉위하였고, 동양 민족은 가족을 봉위국 한다.서양 민족은 예  
포부의 지엄까지 할수없이 개인주의를 가진 민족이다.\*\*\*물체의 윤리, 도덕, 정치, 법률,  
사회적 지향, 국가적 열망, 개인의 자유, 권리의 행복을 목표로 한다.\*\*\*봉합사회의  
가정을 봉위하였고 개인은 권리가 없으며 한 집안의 사람들은 가모에게 복종한다.\*\*\*  
선진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개인 봉위주의로 가족 봉위주의를 격렬하는 것이다.

우주는 가족제도와 친제정치는 "인간적" 분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무슨니면 고수는 '중국의 가정'을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철도이들  
의 개성을 억압하기 때문이다.

유교가 강조하는 것은 효도와 혈연간의 정, 나아가 역사적으로 피를지자가 사회  
인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했기 때문이다 ("효도 나라를 다스림") 주요 이유는 전통  
중국을 농경경제 하에서 형성된 자연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다.현대 중국은 산업사회,  
실업사회, 나라가 인위적 사회다. 효도를 다시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 세기 이후 서양 문화의 전래 되면서 현대의 가치제 기초 한 개인적 열여 후  
서 개인주의적 유행 되고 하여 수십 년 후 자녀 행복을 앞서 한 가정 규모의,원족,종  
의 (패는) 것이 될 것임과, 도시화와 마 큰 인구 폭 동이, 현재 중국 형성 보 인 사회  
인 사회에 발음됨이 높았도다.유교 사상이 의존하는 근간인 가족, 나아가 "이 는 사회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종책적으로 전통과 현대의 관념의 충돌은 현재 중국에서 미  
주 뚜렷하고 또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현실이다.그러므로 전통유교의 효도는 현대사  
회에서 반드시 유행한 속역이 있어야 한다.

둘째, 효도에서 인도로 들어간다

공자가 주장하였다."용사할때가 존재하는 것이, 인의 근본이다."("논어 · 학이")  
"요(堯)와 순(舜)이 깊은 효도의 형이상학이다."("행차 · 고치화")

"친하면서도 어떤 책임을 사할까? 어떤 책임은 모든 것을 사할까?,"("행차(堯  
從社科院 到山師大 多长时间?")

多长时间? 多长时间?

인간의 발전과 완성된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충충한 생활"을 가리키는데, 특유한 물질적 생활뿐만 아니라 고상한 정신적 생활도 포함한다. 이것은 유교가 일관되게 추구하는 목표이며, 또한 유교가 말하는 내용이지만, 현대 사회의 딜레마에는 반드시 위에서 말한 "인간 제명"의 세 번째 측면의 존재를 해결하는 전체 및 발합입니다.

셋째, 효도(孝道) 이외의 신덕 및 효도의 조화

"사람"의 권리와 능력이 다시 돌아가 생각하다 보면, 인간의 책망과 발전을 실현하려면 여러 가지 경도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전통 유교의 효도만 신덕하지 않고, 다른 경도를 통해 효도의 부족점을 조정하고 보충할 수 있다.

어플러면 친자관계에서 유교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효, 공경을 강조하고 이의 의미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내가 보기에 좀 더 본원(동물의 세계가 있으면 현대의 아버지 세대도 대한 공경, 반대로 더 많은 폭을 지르는 부모가 자녀를 보며, 같은 충충 번식을 얻을 수 있고, 장대다.

책을 들어 우에 [친구 옹라 "친구로서인"], 그것은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융화 관계와 친밀한 감정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포례를 들면 남자의 사랑(부부관계)는 낯선 두 이성사이며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키울 수 있다.

전통적인 유가에서도 사회관리로 가정관리를 조율시키는 것을 중시한다. 예를들면,

국정조간(郭店)의 「당유도의(唐虞之道)」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형자를 얻는 것은 인자하고 의롭지 못한 것이다. 친자를 존경하고 친척을 남기니, 의로운 것은 인정하나 어진 것은 없다."

[성어] 「예기(禮記)·표기(表記)」에서 "어린 것보다 후한 자는 의로운 것을 경시하고, 진하지만 존중하지 않는다. 후, 독물자에 대해서는 후하고 인에 대해서는 약하며, 존경하지만 친하지 않다."

국정조간(郭店)의 「육덕(六德)」과 「예기(禮記)·상복사제(喪服四制)」에서 "문밖에서는 은혜를 다스려 의를 키리고, 문밖에서는 의를 다스려 운을 빼앗다"라고 하였다.

중용(中庸)에서 "사람은 어린 사람이라, 친경이 가장 큰 것이다. 의로운 것이 없으니, 어진 자를 높이 받들어야 한다. 진심(親睦)과 현자(賢者)를 존중하는 것은 예의 소신이다."

子) • 진심(衷心) ] 보]

효의 목표와 목적은 인이고, 인의 초심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병자가 인에게 돌으니, 공자가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사람", [논어 • 안연 ]

"사랑하는 사람"은 두 차이를 포함한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영간"이다. 학자들의 관심은 일반적으로 "사랑(love)" 자체에 있는데, 이는 공자의 "인(仁)"의 핵심 관념이며, 인(人)이라는 부분은 종종 무시된다고 여긴다.

[국어(國語) • 주어(周語)(下)]에서 "인(仁)을 말할 때는 반드시 사랑하게 만든다"라고 하였다.

[맹자(孟子) • 진심(衷心)(下)]에서 "인은 사랑이다"라고 하였다.

[예기(禮記) • 표기(表記)]에서 "어린 사람은 사랑이다"라고 하였다.

[예기(禮記) • 중용(中庸)]에서 "어린 사람은 사랑이기에 때문에 친할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크다"라고 하였다.

"인도(仁)는 '인'은 '사랑'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데, 우선 특유 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때 사람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하나의 전체; 그 다음에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감정을 강조할 수 있다. 배이시니 "인(仁)자의 구도는 오래된 인도주의 개념을 표현한다. 즉, 서로 다른 사람을 인간으로 간주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으로 교체한다. '어린 사람은 사랑이다', 이것은 '인(仁)으로'인(仁)을 규정하는 동시에 '인(仁)으로'인(仁)을 규정하는 것이다. '인'이란 인간 간의 애정과 상호 존중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인간 의식과 도덕관념이다.

공자의 반박은 인간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음을 요구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하나는 인간의 태생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 발전하고 행복해지는 것이다.

인간의 태생은 또한 3단계의 내용을 포함한다: '재', '신' [형사 사술, 전쟁 사술, 종교 사술]의 지배로부터 인간을 해방한다; 다른 하나는 인간을 "충충"에서 구출하고, 인간을 진보의 영으로 확립하고,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는 본질적인 특성, 즉 도덕을 가지고 있다. 셋째, 인간을 인간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 인간은 점차 자신의 능동성을 인식하고 긍정하게 되면, 일부는 무한히 성장하여 신으로 발전하게 된다. 즉, 타인의 삶을 조작하려 한다. 또 두 측면은 전통적인 유교가 향상했지만, 세 번째 측면은 현대 철학의 핵심 주제이며, 또한 미래에 유교가 직면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李富強: 《从血缘亲情到礼义教化: 荀子对孝道合理性证明的创造性转译》  
리부강: 《혈연친정에서례의교화에 이르기까지: 효도의 합리성명명에 대한 순자의 창조성전환》

오로 신진시기 유가의 최후의 광인 (Xu Fuguan)의 순자 신진시기 저자역가들이 더한 사상은 심오한 연구에서 비판과 경험을 계속하는 기초 위에 자신의 독특한 문명 체계를 형성, 그중 사람이 이미 가하는 성악실용"학식을 가져와 인간 생존"과 같은 법"의 정치 철학, 그리고 "공은 천안 분"의 자연 철학이다. 신진시기 유교의 저자들 중에서 공자, 맹자, 장자는 모두 효도에 대해 중대한 이론을 하였고 중국 도교문화의 기본 방향과 이론적 위치를 확립하여 연구자들의 중시를 받았다. 그러나 순자의 효도에 관한 이론은 다소 소홀하며 학자들 특별한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의 중국 문화(李과 중국 문화)에서 사교비판(南耕思) 순자의 철학에 "효를 전파하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순자》의 효도사상은 주로 《예문》, 《성악》, 《자도》를 명명해 진 중되어있다. 효도에 관한 순자의 논술은 매우 개성적이며 있다. 주로 공평과 중차와 효도의 합리성에 대한 논술이 다룬다. 공평과 중차는 효도의 합리성을 내적인 혈연관계에 초점을 맞춘 순자는 외적인 예의교화에 초점을 맞췄다.

첫째, 공평과 중차의 효도의 합리성에 대한 증명  
공평(孔孟) 중차는 주로 "친친(친목)애(立愛)가 친족(親族)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혈연(血緣)의 정맥이 근거가 있으며, 이 내적 감정에서 효도의 합리성을 증명하였다.

중차는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근거는 친자간의 근원적인 정맥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효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자녀가 부모에게 응대하는 사랑으로 불려올 수 있는 것이다. 공자와 내가 "삼년상(三年之喪)을 의논할 때"에 대해 이미 밝힌 바가 있다.

"내가 말하기를, 삼년상이 미미 모래되었고니, 공자가 3년 동안 행위를 지키지 않으면 예의는 반드시 완성이지만 동안 슬퍼하지 않으면, 슬퍼하여 반드시 무너진다. 몇 개월이 없어도 세 개월이 끝나면 부식물로 밥을 지퍼면 이미 끝났을 것이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방법을 먹고 배달을 입으니, 여인은 편안하겠는가?" "여자들이며, 그대를 위하여 [근자는 가장 할 때, 음식이 맛도 좋아하지 않고, 즐거움도 좋지 않으며, 거처할 때 불안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가 자를 위하여, 공자가 말씀하셨다. "나는 언약하지 못하다. 나는 3년 동안 밥은 주며 부모의 걱정을 면할 수 있다. 무릇 삼년상은 중화의 모든 사람들이 상을 차르는 것이다. 나는 그 부모에게 3년 동안 사랑을 받았구나!" [논어(論語) • 양품(陽品)]

공자는 자녀에 대한 부모 3년 동안 정맥이 현학 같다. 공자가 묻지, 자녀가 부모에 대해 행의 3년 상, 자의 거 해어 3년 이 지나야 부모의 용을 떠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부모에 대한 대응 한 사람들이 3년 상 성립 할 수 있는 내적 문명, 이 논리적 이성적인 계산에서나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감정에서나 온 것이다. 중차는 또 "애(立愛)는 친목으로부터 시작된다" [礼记·礼记]고 하였다. 인애(仁愛)의 요제(孝帝)는 혈연(血緣)의 정맥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대례기(大戴禮) • 중차대교(中差대교)」에서도 "효는 세 가지가 있다. 공자(曾子)는 효도의 최고 수준은 '존친(尊親)'이며, '존친(尊親)은 맹자(孟子)의 이른바 '친친(親親)' '친친(親親)은 인(仁)' (孟子·衷心)의 실제(仁之實)는 사친(事親)' (孟子·리후(李知) 상)이라고 하였다. 또 자신이 혈연간의 정맥을 공평과 중차가 효도를 통한 돌봄이며, 효도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사랑과 감사의 정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순자의 효도의 합리성에 대한 증명  
순자는 혈연친정에서 효도의 합리성을 논술하는 문명에서 창조적인 전환을 하였다. 순자의 효도의 합리성에 대한 증명은 내적인 혈연친정에서 기초한 것이 아니라 외적인 예의교화에 기초하였다. 우리는 순자가 제기한 "효도의, 예의의 분리" 도를 따르고 일관성을 따르지 않으며, 이를 따르고 부진을 따르지 않는다. "효"의 범주를 합리화 한다면 합리적 해석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 "효도의, 예의의 분리" 순자의 사상 체계의 핵심은 "예(禮)로, 개인 의 수신과 국가의 정치는 모두 예의 교화에 기초하였다. 왕선경(王先謙)은 「순자집해」 서론에서 "순자는 학문과 지식을 논함에 있어서 모두 예를 본원으로 삼고, 반복적으로 주리하며 그 지향을 분명히 함으로써 천교의 수도입교(修道立教)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했다. 순자는 "해" "법"의 대본과 류의 기강(荀子·권차)의 능력이 율한다. 효도(孝道)는 당연히 예의에 속한다. 순자(荀子)가 말하기를, "공자는 아버지에게 양보하고, 동생은 형에게 양보하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양보하고, 동생은 형에게 양보하는 데, 이 두 가지 행위는 모두 성에 반하고 정맥이 아니다. 그러나 효자의 도는, 예의의 문리(文理)이기 때문에 정성(性)에 속한다. 순자는 인간 본성이 악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동생이 형에게 양보하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동생이 형을 대신하는데 이 두 가지 행위는 모두 인간의 본성과 정맥이 아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다 효자의 도요 예의의 문리이다. 효도는 인성의 자연스런 발명이 아니라 예의를 실천하고 교화를 행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순자는 또 역사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효자의 행위를 예의 교화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순자는 말하기를, "아들이 공간(賢尊), 효간(孝尊), 자기( 자기)를 섬기는 것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인데, 공간(賢尊), 효간(孝尊)은 자기(自己)보다 훨씬 높고 효(孝)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무엇이었는가? 예의에 따른다. 하늘은 사제(私尊)나 노(魯) 나라의 백성이나 진(秦) 나라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부자간의 의나 부부간의 구별이 있어서 제(齊) 나라와 노(魯) 나라의 효도 아버지 중정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진나라 사람은 그 성품이 예의에 근거한 인성이 행동하였으니, 그 성품이 어찌 다르겠는가?" [순자(荀子) • 성악(性惡)] 순자는 중상(尊尊)이나 민자(民자)간)이나 자기 자신에게 효도하고 모든 사람을 나쁘리지 않았다. 그런데 유독 중상, 인자, 효자만이 효도의 실제이다 두리하지 효도의 이름을 관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언 때문인가? 그들은 직권적으로 예의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하늘은 자녀와 사람과 노나라 사람에게 치우치고 진나라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는다. 그러나 진나라 사람들은 부자의 의나 부부의 구별이 있어서 제나라 사람이나 노나라 사람들의 효도가 율하지 못하고 공평과 예의가 따르지 못하다. 이것은 무슨 유언인가? 그것은 진나라 사람들이 정성이 순후하고 재앙대로 하는 것이 인후하며 예의교화를 경시하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계: 효(道)를 따르고 일관을 따르지 않으며, 의(義)를 따르고 아버지를 따르지 않는다. 순자(荀子)가 말하기를, "효도를 하면 동생이 나오는 것은, 사랑의 작은 행동이다. 이것만이 순후하고 마땅치 않아 특정한 사람 사이에 행하기 때문이다. 도(道)를 따르고 일관을 따르지 않으며, 의(義)를 따르고 부친을 따르지 않는 것은 인간의 큰 덕행이다." [《순자》· ] 순자도 "효를 동생"에 대한 가족 중차 상의 효도는 단지 작은 행동으로 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시시각각 아버지 모두 순후시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행" "예"에 즉 순자 이른바 "행"을 마땅치 못하다. 즉, 두루 다 중순 수 충심을 각부이다라고, 더 큰 의미 될 수 있을 것이다. [《순자》· ] 순자가 예들과 의

리의 교화를 중시하는 것은 성왕(聖王)과 군사(君師)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이다. 순자는 "예에는 세 가지 근본이 있다. 선조는 부의 근본이다. 군주와 스승은 지도의 근본이다"라고 했다. 「순자(荀子)·예론(禮論)」 성왕(聖王)·군사(君師)는 예의를 교화하는 주체다.

순자도 '삼년상'에 대해 "아버지는 낳았지만 가르치지 못하고, 어머니는 먹울 수 있지만 가르치지 못한다. 밭갈은 이미 막을 수 있지만 가르치면 3년이 지나면 된다"고 했다. 「순자(荀子)·예론(禮論)」 순자의 입장에서 보면 군의 존재는 부모의 은혜보다 크다. 이는 "아버지를 위한다면 군주를 끊어야 하고, 군주를 끊지 않아야 한다" 「곡절초간(곡절초간)·육덕(六德)」는 사명(思蒙) 학파의 주장과 크게 다르다. 아버지와 군주를 위해, 군주와 아버지를 위해 하지 않는다"에 담긴 효도의 이념은 인류 보편에서도 일연간의 정이 공공정치의 원칙보다 크다. 도와 군주를 따르지 않고, 의로부터 아버지를 따르지 않는다'에 담긴 효도의 이념은 혈연간의 정보다 공공정치의 원칙이 더 크다. 여기서 보면 유교의 효도가 종과 효의 관계에 숨겨진 내적 정의를 명할 수 있다.

### 3. 맺음말

자식의 사함을 핵심으로 하는 효도와 가정 윤리는 현대 문명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유가의 효문화가 '실학 연구에 힘쓴 장상룡(張祥龍) 선생은 서양 철학사는 겁이 없는 역사이며, 서양 철학을 따르는 현대 중국 철학은 '가'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서양의 효도와 가정윤리의 차이를 강조하기보다는 유교의 효문 사상 내부에 깊이 들어가 효의 합리성과 보편적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 순자는 관행주의의 입장에서 군자와 중자를 "친족""친족으로부터 사함을 수입"하는 혈연친정에 기초하고 외적 예의의 교화로부터 효도의 합리성과 보편적인 경행을 탐구하였다. 이는 중은 효도문화의 현시기 발전과 창조적인 변화에 참고가치가 있다.